

미얀마 마이크로파이낸스 (소액대출사업) 승인

안녕하십니까, 메이슨캐피탈입니다.

항상 저희 회사를 응원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주주 및 투자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4월 18일 저희 회사는 미얀마에서 마이크로파이낸스 영업인가를 취득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미얀마 영업활동 진행상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이번 4월 18일 미얀마 연방정부로부터 소액금융대출법인 (Microfinance Institute, MFI) 영업인가를 취득했습니다. 2016년 8월 미얀마 소액금융대출시장 (Microfinance Institution, MFI) 대한 의사를 밝힌 이래 1년 6개월여만에 영업인가를 취득하였습니다.

미얀마 정부의 승인을 받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적합한 금융지식을 갖춘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사무용 건물 및 IT 등 인프라의 부족, 예상하기 어려운 미얀마 정부의 인가 절차 등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당국과 꾸준한 실무 접촉 후 승인을 받았습니다.

미얀마는 이미 주요 국내 금융권에서 소액대출시장에 진출하여 현재 12개의 한국계 금융기관이 영업 중에 있으며 그룹계열사가 아닌 캐피탈사 단독으로 진출한 회사는 저희 회사가 유일합니다.

현재 미얀마는 금융 인프라가 발달되어 있지 못하며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경계가 거의 없습니다. 전체 인구의 20% 정도만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를 하고 있으며 대부분 개인거래 및 전당포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금리는 연 200%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불교문화의 영향에 따른 신용을 중요시 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연체율은 미미한 편입니다.

당사의 현지법인인 'MASON Microfinance'는 초기 자본금 100만달러를 시작으로 점차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며, MFI금리는 미얀마의 법규에 따라 연 30%로 영업을 할 예정

입니다. 영업을 위한 자금 조달금리는 연 12% 수준으로 예상되며, 인건비, 관리비용을 제하더라도 12~13%의 마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메이슨 마이크로파이낸스’(MASON Microfinance)’의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현일 법인장은 서울대 경제학과와 KAIST를 졸업하였고 씨티은행과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등에 근무하였으며 오랜 기간 대출, 금융상품개발 등의 금융업무를 해온 국제금융전문가로서 미얀마의 MFI업무를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현지 부장급 직원 3명, 영업사원 6명 등 총 13명의 인력을 채용하였고 사업확장에 따라 점차 인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도 네피도의 최대 상업지인 핀마나의 본사를 기점으로 네피도 8개, 경제 중심지인 양곤 지역에 2개 지점을 시작으로 영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선 현지 교외 지역의 농민 혹은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농업자금대출, 구매자금대출, 학자금대출 등의 대출 상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향후 3년내 지점 15개, 자산규모 2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액금융대출을 바탕으로 현지 금융시장의 노하우를 쌓아, 비은행금융업(NBFI)의 영업범위인 할부금융 및 리스사업 등 사업의 다각화를 모색하며 사업확장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저희 회사를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임직원 일동은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